



SK이노베이션이 1월 28일 SK울산 CLX 하모니홀에서 개최한 '2019 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 전달식'에서 조경목 SK에너지 사장(좌측 네번째),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좌측 여섯번째), 이정묵 노조위원장(우측 두번째)이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SK이노베이션 기본급 1% 모아 협력사에 상생기금 전달

SK이노베이션은 매년 '협력사 상생기금 전달식'을 연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기본급 1%와 회사의 매칭 그랜트로 조성한 금액을 협력사에 전달하는 행사다. 지난 1월 28일 SK울산콤플렉스에서 열린 전달식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조성한 총 47억2천만원의 절반인 23억 6천만원을 66개 협력사에 전달했다. 이 행사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은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금을 받는 대상에는 설비, 생산, 식당, 경비, 청소 등 SK이노베이션 모든 분야 협력사가 포함된다. 기금은 협력사 소속 근로자 4천431명에게 고르게 전달된다. 올해 전달식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김중철 울산고용노동지청장,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이정묵 SK이노

베이션 노조위원장, 협력사 대표와 직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조경목 사장은 "SK이노베이션 전 구성원은 협력사, 사회와 함께 회사를 성장시킨다는 기업문화를 실천하고 있다"면서 "협력사와의 행복 파트너십이 더 견고해져 안정적인 조업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묵 노조위원장은 "상생기금 사업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노조는 회사와 협력하고 존중과 배려를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력사 만족도도 높다. 강중수 제이콘 대표는 "상생기금 전달은 SK와 협력사 간 신뢰와 믿음, 동반성장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면서 "협력사 구성원의 처우 개선에 실질적인 도



'2019 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 전달식'에서 SK이노베이션과 협력사 구성원과의 상생과 협력을 상징하는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조경목 SK에너지 사장이 1월 28일 SK울산 CLX 하모니홀에서 개최한 '2019 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 전달식'에서 협력사 구성원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2019 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 전달식'에서 SK구성원과 협력사 구성원이 함께 축하 공연을 펼쳤다.

움이 될 뿐 아니라, SK와 함께 근무하는 것에 자긍심을 갖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노사는 2017년 9월 타결한 임단협에서 임직원 기본급 1%를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더해 행복나눔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의 절반을 협력사 구성원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절반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지원된다. 현재 SK이노베이션 계열 임직원 90%가량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 있다. 회사 측은 올해에는 회사 참여분을 포함해 52억4천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2017년 9월 이후 올해 말까지 조성되는 기금은 총 106억원에 달하게 된다. 지난해 조성된 약 54억원의 행복나눔기금 중 회사 측 기부금 24억원은 협력사 임직원을 위한 상생 기금으로 전달됐고, 임직원들의 기부금은 울산·인천·서울 지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7개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지원됐다. SK에너지는 지난해 11월 '2018 노사문화 대상'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 ❶

INTERVIEW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끈끈한 정을 느낍니다."



SK이노베이션 협력사인 '유벡'의 김형신 대표는 1% 행복나눔기금에 대한 만족도를 이렇게 표현했다. SK 울산콤플렉스 인근에 있는 이 회사는 공장 건설·정비 전문업체로, SK이노베이션과는 34년간 함께 일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해외 진출과 인재 채용에서도 SK이노베이션의 도움을 받았다. 김 대표는 "2011년 정유공장을 건설한 베트남 측이 SK에 정기 보수 관련 도움을 요청했고, SK 측이 우리 회사를 소개해 90억원 규모 물량을 처리했다"면서 "SK가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협력사 채용박람회'에 참여해 직원 8명을 고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SK이노베이션과 상생하면서 얻은 성장 에너지를 지역 사회와 근로자에게 환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